

국내경기, 급속한 악화가 계속

~ 긴급사태선언으로 시장기능의 대부분이 제한, 중소기업은 과거최대의 하락폭 ~

(조사대상 2만 3,672사, 유효회답 1만 1,961사, 회답율 50.5%,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0년 4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6.7포인트 감소한 25.8로 7개월 연속 악화, 전월에 이어 과거최대의 하락폭을 갱신하였다. 국내경기는 경제가 수축되는 가운데 기업활동이 제약되면서 급속한 악화가 계속되었다. 향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수습 등 불확실성이 강하여 경기후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 10개 업계, 51개 업종 중 48개 업종이 악화되었다. 『건설』 『제조』 『도매』의 3개 업계, 「수송용기계·기구제조」 등 14개 업종에서 전월부터의 하락폭이 과거최대를 보였다. 또한 14개 업종에서의 경기 DI는 과거최저로 나타났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이 전국에 미치게 되어, 2개월 연속 전 10개 지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이 악화, 24개 도부현(都府県)에서 과거최저를 갱신하였다. 외출 자제로 인한 지역내외로의 이동제한 및 면담 억제와 더불어 휴업요청에 대한 대응 등 지역경제의 활동이 정체하였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이 7개월 연속 모두 악화되었다.

< 2020년 4월의 동향 : 수축 >

2020년 4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6.7포인트 감소한 25.8로 7개월 연속 악화, 전월에 이어 과거최대의 하락폭을 갱신하였다. 경기DI는 과거 3개월 동안 16.1포인트 감소하였다.

4월의 국내경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감염확대방지를 위하여 정부가 긴급사태선언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동이 크게 제약되었다. 외출자제 및 휴업의 확산 등을 통하여 시장기능의 대부분이 제약된 가운데, 국내·해외 수요가 급속히 얼어붙었다.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사람·물자·현금의 흐름이 지역·업종·기업규모를 가리지 않고 정체하여 국내경제를 하락시켰다. 한편 택배사업 등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하는 등, 슈퍼 및 의약품소매 등은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경제가 수축되는 가운데 기업활동이 제약되면서 급속한 악화가 계속되었다.

< 향후의 전망 : 계속되는 후퇴 >

향후의 국내경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수습 상황이 앞날을 좌우할 것이다. 국제경제에 있어 세계대공황 이래의 침체가 예측되는 가운데, 기업 및 개인, 금융시장 등은 불확실성의 고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67%에서 4월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등, 기업 업적의 악화에 따른 고용·소득 환경의 불안정화 등은 경기의 중추가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행동변화 및 공급 측의 대응이 주시된다. 한편 정부의 긴급경제대책 및 일본은행에 의한 금융완화대책의 강화가 실시되는 한편 생산의 국내회귀 및 신상품·서비스의 투입 등은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수습 등 불확실성이 강하여 경기후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에 경제통계를 더한 Structural ARIMA 모델로 분석